

♩ = 98

오 묘 하 게 지 어 주 신 이 몸,

당 신 을 찬 송 - 하 나 이 다.

○ 주님, 당신은 저를 살펴보시고 잘 아시나 이 다. 앞으 나 서나 당신은 저를 아시고,
- 멀리서도 제 생각 알아차리시나 이 다.
○ 당신은 제 오장육부를 만드 시 고, 어미 배 속에서 저를 엮으셨나 이 다.
○ 제 영혼이 잘 아나 이 다. 제가 남몰래 만들어 질 때,

○ 길을 가도 누워 있어도 헤아리 시 니, 당신은 저의 길 모두 아시나 이 다.
○ 오묘하게 지어 주신 이 몸, 당신을 찬송하 나 이 다. 당신 작품들은 놀랍기만 하옵 니 다.
○ 땅속 깊은 곳에서 짜 일 때, 제 뼈대 속속들이 당신은 아시나 이 다.

복음 환호송 / 루카 1,76

◎ 알렐루야.

○ 아기야,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 되어 주님께 앞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리라.

◎ 알렐루야.